

3/18(금) 삼상 4-7장 영적 채널 복구하기

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에 서툴렀습니다.

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묻고 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(삿21:18,23,28).

사사시대 끝 무렵에는 말씀과 이상마저 희귀해졌습니다(3:1).

하나님의 부름에 제사장도 당사자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합니다(삼상3:1-9).

레위인, 제사장, 백성들이 마땅히 가르칠 바를 잊은 까닭입니다(레10:9-10, 신6:1-9).

이스라엘은 소견대로 사는 방식에 더 익숙해졌습니다(삿17:6,18:1,19:1,21:25).

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전쟁하는 방식도 잊었습니다.

전투를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거나 듣지 않습니다.

전쟁이 잘 풀리지 않자 그제서야 <하나님>을 떠올리지만(4:3),

여전히 묻지 않고 소견대로 <언약궤>를 진중에 가져옵니다(4:3-4, 민14:44 참고).

그들은 우상을 섬기듯, 부적을 소지하듯 하나님을 대합니다.

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가르치는 형국입니다.

이스라엘은 전쟁에 패배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깁니다.

<나이 많고 비대한> 엘리는 <의자 אֲרֹן>에서 뒤로 넘어져 죽습니다.

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듯 보였습니다(4:21-22, 이가봇).

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통제와 주권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.

블레셋은 도구일 뿐 진정한 통치자가 아닙니다(시103:19, 삼상5-6장).

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 구시대(사사시대)를 매듭지으십니다(4:17-18).

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게 하십니다.

회복의 첫 걸음은 하나님과의 영적 채널을 복구하는 것입니다(7:3-4).

에벤에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부르짖을 때(7:8,12, 에벤에셀)

진정한 회복과 평안, 새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(7:13-14).

나와 하나님의 영적 채널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까?

①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묻고 들어야 하는지 <알고> 있습니까?

② 나는 하나님께 <실제> 묻고 들으며, <부르짖고>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사무엘상 4-7장